

루키 장현석에 다저스 기대 폭발



▲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장현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osen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우완 강속구 투수 장현석(20)이 루키리그를 통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8일 'OSEN'에 따르면 LA 다저스 산하 루키리그에 소속된 장현석은 이틀 전 애리조나 주 글렌데일 캠프백랜치 컴플렉스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산하 루키 팀과의 경기에 선발등판, 2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잡으며 안타와 사사구 없이 무실점 퍼펙트로 막았다.

193cm, 90kg 거구의 우완 정통파 투수 장현석은 마산용마고 2학년 때부터 최고 시속 156km 강속구를 뿌리며 대형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3학년이 된 지난해에는 최고 구속을 158km로 높이며 9경기(29이닝)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93 탈삼진 52개로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

았다.

지난해 8월 다저스와 계약금 100만 달러에 사인하며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장현석은 이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까지 받으며 군입대 부담까지 떨칠 수 있었다.

'LA타임스'는 3월20일 '다저스 유망주 장현석이 MLB 차세대 한국 스타가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 아래 다저스가 박찬호, 류현진에 이어 장현석이 한국의 차세대 성공 신화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현석은 193cm 큰 키에 90마일대 후반 패스트볼에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변화구까지, 미래 메이저리그 선발투수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롭 힐 다저스 마이너리그 피칭 디렉터는 "우리는 선발 로테이션 최고 투수로 장현석의 미래를 보고 있다. 그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줄도 안다. 그에겐 한계가 없다"고 칭찬했다. 이어 "장현석이 못 던지는 공이 뭔가?"라고 농담을 던지며 "실제 커맨드와 운영하는 능력이 나이에 비해 상당히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브랜든 곱스 다저스 단장도 지난 2월4일 팬페스트에서 "장현석이 196cm 장신 투수 바비 밀러 옆에 서도 밀리지 않는 체격에 놀랐다. 지금 그 몸에 패스트볼 구질을 보면 메이저리그 선발투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사인 볼트 vs 킬리안 음바페, 100m 시합 '합의'

육상 100m 세계기록 보유자인 '번개' 우사인 볼트와 세계적인 축구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FC)가 100m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 볼트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여기에 음바페가 화답했다.

6일 '엑스포스포츠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RMC 스포츠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음바페는 한 스포츠용품사 후원으로 '인스파이어드 바이 KM(킬리안 음바페)'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볼트가 나선 것이다. 볼트는 자신이 음바페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극찬과 함께 경주를 제안했다.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제안이다. 볼트는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58로 우승했고 이 기록은 15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또 같은 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19초19를 기록하며 이 종목 세계 기록도 갖고 있다. 하지만 볼트는 지난 2017 런던 세계선수권대회를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했고 나이도 38살이 됐다.

음바페는 "내가 그런 세계적인 선수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면서 "그는 모두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다. 그의 달리기를 보기 위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일이 많았다"고 볼트를 응원



▲ 우사인 볼트(왼쪽)와 킬리안 음바페. 사진=연합뉴스

했다.

음바페는 현역 축구선수 중 스피드에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빠르지만 100m 최고 기록은 10초6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은퇴한지 7년이 지난 볼트의 몸 상태다. 볼트가 꾸준히 운동을 했다면 여전히 볼트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음바페는 자신이 이길 기회가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웃었다.

음바페는 소속팀 PSG의 허락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달리기하다가 햄스트링(허벅지 뒷근육)을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프랑스 언론은 음바페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볼트와의 세기의 대결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한다. 음바페와 PSG를 함께 후원하는용품사도 둘의 대결을 지지하고 있다.

애나하임점 GRAND OPENING



명인만두

MYUNG IN DUMPLINGS

만두에도 名品이 있습니다

알찬속으로 정성스럽게 직접 빚어내어
장인의 손맛이 살아있는 맛있는 만두집!

Since 2007



Anaheim T.714.603.7399 821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Buena Park T.657.529.1068 677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LA T.213.381.3568 3109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North Ridge T.818.280.6001 19520 Nordhoff St. #4 Northridge, CA 91324	Federal Way T.253.838.1180 33310 Pacific Hwy. S. #408 Federal Way, WA 98003	Las Vegas T.702.227.0601 6085 S. Rainbow Blvd. Las Vegas, NV 89118
--	--	--	--	--	---